

문헌이새의 복수



Zulu folktales
Wiehan de Jager
Michelle Kim
4
한국어 ko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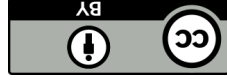


Global Storybooks

globalstorybooks.net

문헌이새의 복수

Zulu folktales
Wiehan de Jager
Michelle Kim



This work is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3.0 International License.
<https://creativecommons.org/licenses/by/3.0>





이 이야기는 네게데, 꿀잡이새, 그리고 진질레 라는 욕심많은 젊은 사람 이야기 입니다. 진질레는 사냥을 하러 밖에 나갔어요. 갑자기 그는 네게데의 소리를 들었어요. 진질레는 꿀 생각에 입에 침이 고였어요. 그는 그의 머리 위에 나뭇 가지에 새를 볼 때까지 멈추고 주의 깊게 들었어요. “치틱-치 틱-치틱,” 작은 새가 그 다음 나무에 가며 소리 냈어요. 그후로 그 새는 “치틱-치틱-치틱”하며 진질레가 따라오고 있는지 수시로 멈추며 확인했어요.

민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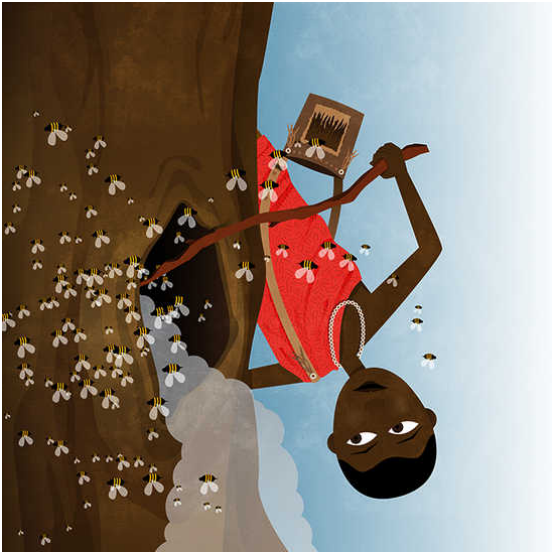
상선복 후, 그들은 거대한 야생 무화과 나무에 도달했습니다. 네게테는 미친 듯이 가지 위를 뛰어 다녔어요. 그는 그 한 가지 위에 정착하고, 그의 머리를 숙여 잔잔하게 말했어요, “여깁니다! 이리곤 오세요!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?” 잔잔레는 나무 아래에서 쾨벌을 하나도 볼 수 없었지만, 네게테를





진질레는 나무 아래에서 그의 사냥 창을 내려 놓고, 마른 나뭇 가지를 모아 작은 불을 만들었어요. 불에 잘 타고 있을 때, 그는 긴 마른 막대기를 불꽃 중심에 넣었어요. 그 나무는 탈때 특히 연기를 많이 내기로 알려져 있었어요. 진질레는 식은 나무를 입에 물고 나무를 오르기 시작했어요.

그는 곧 바깥 꿀벌의 웅얼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
 요. 그들은 나무 속 파인곳에서 들어갔다가 나왔
 다가 했어요. 진짙레가 그들의 벌집 근처로 다가갔
 름때 그는 입에 물고 있던 나뭇가지를 벌집 속으로
 림어 넣었어요. 꿀벌들은 분노에 차서 밖으로 돌진
 했어요. 그들은 진짙레에게 고통스러운 독침을 쏘
 고 날아갔어요 왜냐하면 그 나뭇가지에 베어있는
 연기를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죠.



그래서, 진짙레의 아들이 네게 데의 이야기를 들
 으면 그들은 작은 새에 대해 조종이 있습니다. 그
 들은 꿀을 수확 할 때마다, 벌꿀 덩어리를 쭈뼛
 이 새들에게 나눠주곤 합니다.





꿀벌들이 밖으로 다 나왔을 때, 진질레는 등지에 자신의 손을 밀어 넣었어요. 그는 한 움큼 벌꿀 덩어리를 집었어요. 그 꿀 덩어리는 진한 꿀이 똑똑 떨어졌어요. 그는 그가 어깨에 메고 다니는 자신의 주머니에 꿀 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넣었어요, 그리고 그는 나무에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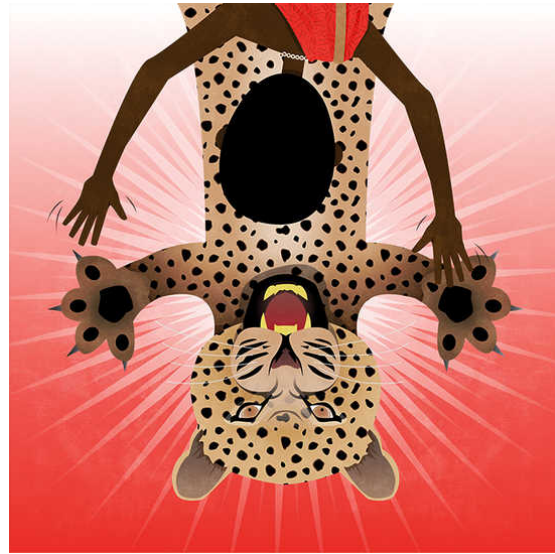


레오파드가 진질레를 공격하기 전에, 진질레는 나무 아래로 돌진했어요. 그가 너무 서둘러서 그의 나뭇가지를 놓치고, 무거운 쿵 소리와 함께 떨어질 때, 그의 발목이 뒤틀렸어요. 그는 빨리 다리를 절며 뛰어 갔어요. 다행히도, 표범은 그를 쫓아 가기에는 아직 너무 졸렸어요. 네게데, 그 벌꿀 길잡이 새는 그의 복수를 했고 진질레는 그의 교훈을 배웠습니다.

네게데는 진천레가 하고 있던 모든 것을 열심히 지켜 보았어요. 그는 자신이 네쥘레에게 벌룬 조각이 가 되었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벌룬 조각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었어요. 네게데는 가지 가지를 뚫겨가며 바닥으로 가까이 다가갔어요. 드디어 진천레근 나무에서 거의 내려왔어요. 네게데는 진천레근 처 바위에 자리 잡고 그의 보상을 기다렸어요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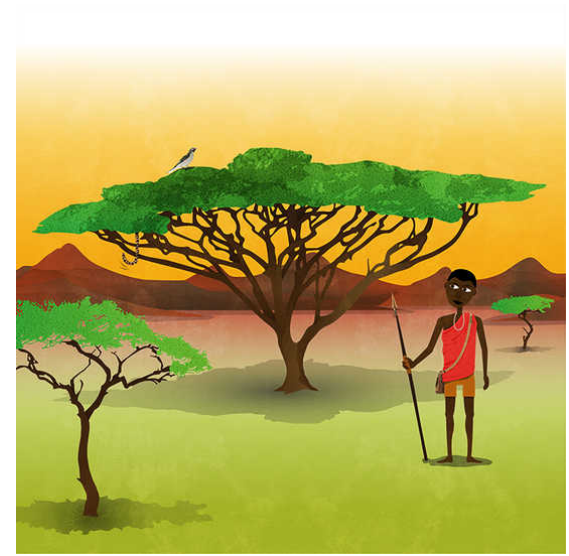


진천레는 벌룬의 왕을 가리는 소리가 들리지 않음
이유를 묻곤 해 하며 나무를 뚫었어요. "어머도 벌
룬은 나무 꺾은 곳에 있구나" 라고 스스로 생각했
어요. 그는 또 다들 가지뚫을라 했어요. 하지만 벌
룬 대신, 그는 표범의 얼룩을 쳐다보고 있었어요!
표범은 무례하게 그 녀의 잔을 범해 받아서 매우 화
가 나 있는 상태였어요. 그 녀는 그 녀의 노래를 들게
하고 그 녀의 매우 크고 매우 튼튼한 공이 뿔을 드러
내며 입을 열었어요.





그러나, 진질레는 불을 끄고 자신의 창을 집어 새를 무시하고 집으로 걷기 시작했어요. 네게데는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, “진질레! 진질레!” 진질레가 잠시 멈춰 그 작은 새를 응시하고 큰 소리로 웃었어요. “너도 꿀을 원하니 친구야? 하! 하지만 내가 모든일을 하고 벌침도 내가 다 맞았어. 왜 내가 너랑이 아름다운 꿀을 공유해야 하지?” 그리고 그는 걸어갔어요. 네게데는 분노했어요! 그를 이렇게 대하면 안되는거였어요! 네게데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 먹었어요.



몇 주 후 어느날 진질레는 다시 네게데의 꿀 위치 알림을 들었어요. 그는 맛있는 꿀을 기억하고, 열심히 다시 한 번 새를 따라갔어요. 네게데는 숲의 가장자리를 따라 진질레를 선도 한 후, 그는 큰 우산 가시에서 멈추고 휴식을 취했어요. “아,” 진질레는 생각했어요. “벌집이 이 나무에 있겠구나.” 그는 신속하게 작은 불을 만들어 그의 입에 탄 나뭇가지를 물고 나무를 타기 시작했어요. 네게데는 앞서 보고있었죠.